

# “매력 넘친 전남 산림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 휴양림·치유의숲·명품숲길 등 36개 산림휴양시설 인기 올들어 휴양객 100만여명 방문

전남에 자리한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휴양림, 치유의 숲, 명품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이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휴양림 15개소, 치유의 숲 8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 걷고 싶은 명품숲길 12개소 총 48km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휴양객 100만여 명이 찾았다.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자연휴양림 중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등 산림휴양시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짙어진, 모험(어드벤처)시설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 봉황산-신안 다도해-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3곳은 전남의 아름다운 바다와 숲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다.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을 바라면 숲나들-e 시스템(www.foresttrip.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찾고 싶은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장흥 정남진 치유의 숲은 울창한 편백숲에서 피톤치드 향기와 함께 톱밥 산책로 맨발 걷기, 명상과 체조, 아로마 오일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나주 빛가람, 화순 만연산, 고흥 팔영산, 땅끝해남 치유의 숲 등에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 누리집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주목받는 숲속야영장은 보성 운제림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캠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투입, 광양, 순천, 화순, 무안, 완도, 장성 등 지역에 숲속야영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등산로, 들레길 등 숲길 4442km가 조성돼 있는데,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과 숲을 연계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중 48km를 걷고 싶은 명품숲길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진도 철장산 난대숲길, 해남 두륜산 장춘천년숲길, 목포 고하도 해변숲길, 구례 천은사 수변숲길 등이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늘어나는 산림 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시설 확충하겠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을 찾아 활력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늘어나는 산림 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시설 확충하겠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을 찾아 활력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 자리한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휴양림, 치유의 숲, 명품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에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100만 여명의 휴양객들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보성자연휴양림 일대.

길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진도 철장산 난대숲길, 해남 두륜산 장춘천년숲길, 목포 고하도 해변숲길, 구례 천은사 수변숲길 등이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늘어나는 산림 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시설 확충하겠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을 찾아 활력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시설 확충하겠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을 찾아 활력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늘어나는 산림 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시설 확충하겠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을 찾아 활력을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장록습지서 생물다양성 탐사캠프

광주시는 “도심 속 첫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에서 10일부터 이틀간 ‘제2회 2022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탐사는 학생 참가자들이 생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기록하는 생태 체험학습 참여 활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번 탐사는 장록습지에 다양한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전문가 30명과 초·중·고 학생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고, 7개 분류군별(식물, 곤충, 조류, 어류, 양서·파충·포유류 등)로 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10일에는 맑은 빛을 쫓아오는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야간 곤충 탐사를 진행하고, 11일에는 7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학생 참가자가 장록국가습지 일대를 탐사하며 생물종 목록 및 생태지도 등도 작성한다.

탐사 활동 이후에는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함께 생물다양성 이야기 마당과 생물종 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사)순해실기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장록습지의 생물종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후속 조치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배달음식 위생 강화 12일까지 시·군 합동점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22개 시·군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136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배달용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김밥)을 수거, 식중독균 검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575개소를 점검했으며, 그중 영업장 내 음식물 쓰레기 관리 미흡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했다.

또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음식점 점검 시 영업장과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함께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달걀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 온도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인기몰이’

### 산악·호우·지진 안전 등 체험 7월까지 47000여명 방문 이용자 99% “프로그램 만족”

광주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안전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복귀 오차동에 문을 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 7월까지 총 4만 7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1-3층에 어린이 안전 체험시설을 비롯한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안전, 학생안전 체험 시설 등을 갖추고 유아부터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특히 여름철을 맞아 안전한 물놀이

방법과 구명환 사용법, 폭우 시 안전한 대피 체험 등을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인형극 등도 선보이고 있다.

도심 접근성 등이 좋은 강정 때문에 광주 시민은 물론 타지역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체험객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체험관측의 설명이다.

체험관 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만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을 ‘배려의 날’로 지정해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최근 이용자 4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이 99%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98%를 차지했다.

체험관은 올 하반기 개관 1주년 행사를 비롯한 송년 문화공연 등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교과요



광주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원 체험교육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추진, 홈페이지 예약 관리시스템 보완 및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 최초로 ‘호우안전체험’을 특화하고 광주의 대표 명소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산악안전체험’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에는 휴관하며, 체험관 이용은 무료다.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062-606-4804~6)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중국 연길에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 개장

### 유자가공품·조미김 등 29개 제품 고품질 식품으로 소비자 집중 공략

전남도가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소재한 만달광장 쇼핑몰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 중국 5호점을 개장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

설 판매장 운영은 현지 무역전문법인 상해건화은 국제무역유한공사가 맡았다. 현지 소비자와 한인 동포를 집중 공략해 연간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판매 품목은 전남 특산품인 친환경 유자가공식품, 조미김, 매실청 등을 비롯해 오곡누룽지, 소주, 작두콩차, 쌀과자 등 도내 15개 기업 29개 제품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인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 대표와 김영심 전남도 중국사무소 소장, 웬센후이 길림성 외판아시아처장, 전추량주 길림성 외판부주임,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국산 농수산물식품 전용판매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는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아용 식품, 스낵류, 음료, 차, 전통주류, 수산 가공품을 주로 수입해 상해 자유무역성 등 직판장

2개소와 현지 마트 등에 납품하는 연 매출 487만 달러의 중국 현지 유통 전문기업이다.

만달광장은 부동산, 호텔, 금융이 주 사업인 중국 10대 재벌그룹 만달그룹이 전국 254개 지역에 개설한 대규모 종합쇼핑몰 브랜드다. 연길시 만달광장은 지난 2016년 55만㎡ 규모로 개장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에 이르며,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 15억 위안(한화 2890억원)을 올린 연변 소수민족자치주 최대 규모 종합쇼핑몰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2년 8월호

2022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정원에서 힐링하다

나의 정원이 모두의 정원으로  
- “그 섬에 특별한 정원이 있다”  
전남 민간정원 1호 ‘힐링파크 쑥섬쑥섬’  
- 전라남도 정원 문화와 산업 가관다

영동로 501세이  
美路 味路  
초록 물결 일렁이는 보성  
녹차수도로 여름 여행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GWANGJU TOUR

특량역 ‘추억의 거리’와 갈골마을  
- 율포 솔밭해수욕장/제암산 자연휴양림 / 대천다원 녹차밭  
- 백목다원 ‘보성녹차’ / 상선농원 딸기 브랜드 ‘그로우글로우’  
- 복합관광시설 카페 ‘북재’

#8월 광주여행  
#동명동 일대 풀리 #광주음성과 풀리 #충장로 풀리  
#뚝뚝의 공간 속 풀리

### 에앙 초대석

## 제주에 정착, 창작의 밭 일구는 시인 문태준

“문장을 얻는다는 것은 새 마음을 얻는다는 뜻”

여름기획  
음악, 문학, 미술의 아름다운 바다  
‘예술여행’ 원한다면 통영으로 떠나요

기회-유럽은 지금 미술축제 중  
- 장현우 관장의 유럽 미술 빅이벤트 관람기  
- 예술 축제의 도시들에게 배운다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①  
오래된 화첩에서 매력적 미국 풍경이 살아난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②  
철·학문 드높은 하시 김인후 배향장성 필암서원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㉞  
뒀든 느린 미술평론가 유준상 점심 요리 저녁 때야 완성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㉞  
영화 ‘브릿지 존스의 일기’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